

주제:새시대 새리더(New Leader of the new generation)

발제자:이정현 목사

서론

제가 맡은 주제는 “새시대 새리더”입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한 책으로는 이성희 목사의 “미래목회 대 예언”, “밀레니엄 목회 리포트”와 예수전도단에서 출판된 “21세기의 지도자”, 제임스 민즈의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Blaine Lee의 “지도력의 원칙”, 지도력 개발연구소의 설립자, John Maxwell의 “열매맺는 지도자”,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리턴 포드의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W.Deuwell의 “열정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몇편의 짧은 논문도 참고하여 이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 내용으로는, 21세기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주로 미래에 독특하게 나타날 몇가지 요소를 뽑아서 소개하고, 이어서 그러면 그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회와 교회를 리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길수 있는가? 새 밀레니엄에 맞는 교회의 리더모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일의 수종자인 젊은 리더의 자질 3가지를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0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봄으로 피차 도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금 21세기에 관해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과 염려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가올 미래이고 맞이해야 할 21세기라면 잘 준비해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회에는 21세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연구소도 많이 생겼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21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만 2000개가 넘고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3000명 이상이며, 1년 소요경비가 5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래 연구에 이만한 인력과 경비를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경향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경제정책을 펴고,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발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다미)를 연구하는 것은 가치있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 교회가 다가올 미래의 교회와 목회와 사역을 연구하는 면은 훨씬 뒤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나 신학교에 ‘21세기 목회연구소’가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미 1990년도에 성공회에서 ‘21세기 성공회의 미래 목회 예측’을 연구하여 발표한 적이 있었고, 풀러신학교의 Joe B. Webb 교수를 중심으로 발족된 ‘미래목회연구소’에서는 사회변동에 따른 ‘미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미국은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연구, 발표하여 21세기에 걸맞는 리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997년에 와서야 그 용어들 즉, ‘미래목회’, ‘새 밀레니엄 목회’, ‘21세기의 목회 패러다임’, ‘새천년 새리더’ 이런 말들이 나 돌기 시작해서, 21세기를 맞은 요즈음에 그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 가는 듯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연구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

1. 21세기의 시대적 상황

지금의 시대는 무섭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에서 엘빈 토플러는,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고, 제2의 물결은 공업혁명이고, 제3의 물결은 탈공업혁명이라고 말 하면서, 각 물결마다 시간적 흐름을 얘기하는데, 1에서 2로 넘어가는데 3000년이 걸렸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데 300년이 걸렸고, 3의 물결은 30년이 지나 4의 물결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역사변천의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며, 그러면서도 후시대 인류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보잘 것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사회적인 특성은 어떨지 몇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치관의 혼란시대

신세대를 섬기고 교육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우리들이기에 신세대들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흔히 신세대를 가리켜 ‘PANTS 신드롬’ 세대라고 합니다.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 .흥미본위로 행동한다.
- .자연스러움을 좋아한다.
- .성 구별이 모호하다.
- .극단적인 자기자랑에 빠진 세대라는 뜻이다.

기성세대들은 영양을 위해 식사는 비싼 것 먹고 커피는 자판기에서 뽑아 먹습니다. 그러나 신세대들은 1000원짜리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5000원 짜리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 세대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97년 6월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승용차 수가 1000만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승용차 보유자의 20-30대가 전체의 56%를 차지 한답니다. 집 없이 샅월세를 살아도, 직장이 변변치 못해도, 대중교통이 편리해도 차부터 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어렵다 어렵다해도 차가 없거나 핸드폰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없다고 하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핸드폰 비용은 내더라고요. 차나 핸드폰 없는 사람, 아마 있다해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며칠전 신문 통계에보니까, 대학생 72%가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용돈 중 핸드폰 사용료로 제일 많이 지출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의 가치관도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계약결혼을 선호하고 성적인 가치가 떨어지면 서슴없이 이혼을 합니다.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또한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의 상품화를 인정하며 위 아래의 성관계가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게의 계통이 순수하지 못하며 족보가 복잡하게 되어, 족보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마치 성적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노아시대 때를 방불케 합니다. ex) 강남의 아줌마들

직업의 스타일과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종교의 가치도 선세대들과 신세대사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2) 정보화와 기술의 메가트렌드 시대

네그로폰테라는 사람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며 정보시대는 비트시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트라는 말은 ‘색깔과 무게도 없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가장 작은 원자적 요소’를 말한다. 이 비트 시대가 되면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갈 필요도 없이 자기 컴퓨터에서 책을 찾아 볼 수 있고, 리포트는 E 메일로 보낸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구입하는 비용의 반으로도 충분히 리포트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컴퓨터는 이제 신체의 일부이다. PC통신과 인터넷은 기본이며, 컴퓨터를 통하여 장을 보고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사업을 한다. 정보통신의 수단이 없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

지난 7월 30일자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에서 ‘21세기 21개 분야 예측’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일부분을 보면,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 세계에 알리고 싶으면 이제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인터넷에 띄우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당신의 곡을 듣고 E메일로 팬레터를 보낼 것이다. 영화와 저술도 완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 가능하다.”고 하였고 또한 “초고속 인터넷 발달과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유전자학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원자와 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신물질을 만들어 낸다. 예를들면 나무를 태우고 남는 숯과 연필 심으로 쓰이는 흑연, 다이아몬드의 구성원자는 탄소인데, 숯이나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원자를 하나씩 집어내 다이아몬드 구조로 배열, 결합시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보다 머리가 좋은 로봇도 나오며”, 심지어 초소형 로봇을 만들어 혈관속에 투입하여 레이저 광선을 쏘며 암세포를 죽이는 현실이 올것이라 말한다. 이것을 ‘나노 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미래학자, 에릭 드렉슬러가 그의 책, ‘창조의 엔진’이라는 책에서 그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21세기는 ‘나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건강, 식량 그리고 인류의 모든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정보와 통신, 과학기술의 메가트렌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지금 한국의 과학과 기술의 정보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세계 55개국을 상대로 정보의 수준을 조사했더니 미국이 1위, 필란드가 2위, 한국은 22위 였습니

다.

199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수준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20위로 평가 받았다. 최근(1999)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반도체나 이동전화단말기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에 도달했으나 천문, 우주관측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3) 개인주의

장종철 교수는 “신세대의 개인주의는 서유럽에서 강조되어 온 이성애 근거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현실과 감정에따라 움직이는 감각적 개인주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세대들은 권위주의, 획일주의, 전체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에서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상사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퇴근합니다. 같은 헤어스타일, 옷입는 것, 말하고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획일주의보다 개인감각주의가 강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아까운게 없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과 봉사, 이타적인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로 시간개념이나 장유유서의 개념이 사라진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조사된 한 보고서에, “만약 미국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철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 개인자유, 자기충배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존 네스비트(John Naisbitt)라는 사람이 쓴 “Megatrends 2000”이라는 책에서,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주제는 바로 개인주의이다”라고 했다.

예) 어느 교회에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 있어서, 예배 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는 모자 좀 벗으면 안 되냐?’고 말 했더니, 이 학생이, ‘원래 우리나라 전통은 방안에서 갓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 하더군요.

개인주의의 강세는 공동체의식, 상호의존, 책임감 등의 가치관과 반대되며, 개인주의자들은 타인과의 결속, 조직에 대한 의무, 가난한 자에 대한 구호, 선교, 헌신, 봉사에 대해 무관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2. 21세기의 바람직한 교회의 방향

1) 교회행정면-중앙집권적 목회구조에서 지방분권적 목회구조로 바뀌라.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목회(리더)형태를 버리라.

기업의 최고경영자 역할과 같은 목회는 버리라.

ex) 헨리 포드

2) 교회인사면-전문인 중심(기도, 찬송, 교육, 기획이나 행정, 설교, 드라마, 여성, 청소년, 아동, 음향전문가....)과 평신도를 활용하라 - 돈 절약, 교회 장기발전에 유익.

3)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영성이 강화된 교회로 바꾸라.

성경공부-

제자훈련-

4) 변칙적 교회가 아닌 모범된 교회를 꿈꾸라.

‘유행성을 따르지 말고 유용성을 추구하라’

5)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에 역점을 두라.

빌 헬 목사는 “이것들을 목회의 핵심에 두라”고 강조한다.

6) 장년이나 여성위주가 아닌 전체 위주의 평등교회를 구상하라.

7) 예배를 개혁하라-

성공한 교회의 두가지 특징 중 첫째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였다. 21세기 교회의 두가지 문제는 ‘예배와 가정’이다.

기도는 예전적 기도보다 자유기도를 구사하라.

찬송은 기존 찬송곡에 좋은 복음송을 곁들여 역동적으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설교-제목설교에서 강해설교로, 선포설교에서 이야기식 설교로 전환하라.

언어중심에서 미디어 중심-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라.

복음의 내용과 전달수단

교제-교회소식, 예배 중, 이후의 친교시간,

3. 교회 지도자 문제

미국 덴버신학교 목회학 교수로 있는 제임스 민즈 박사는 21세기 교회 지도자의 인격에 관해, 첫째 개인적 성실성, 영적 생명력, 상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 나오는 열정이라고 지적 했다.

저는 여기서 거룩성, 경건성, 열성, 전문성을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1) 거룩성

1980년대 말, 미국에서 많은 교회 리더들의 비리, 성추문, 부정,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들어나자, 이것을 본 타임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문제있는 종교가 아닌가?”

흔히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돈, 명예, 여자를 조심하라고 권면 하시는 것

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다른 리더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으로, 언제나 오늘이나 진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할 때”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탄은 거룩성을 가지고 부단히 목사를 시험한다. 제일 좋은 유혹거리, 제일 효과를 본 유혹거리, 종말 때까지 사용할 유혹거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만 잡아놓으면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놓으려면 목사를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사탄의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례들을 많이 들어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결국은 목사(교회의 리더)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부도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ex) 다미션교회의 이장림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자신을 쳐서 복종 시킴이 필요하다. 아무도 이 부분에서 장담할 수 없으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삶으로 성적 유혹에서 승리해야 21세기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다.

21세기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21세기의 세상풍조가 아무리 난잡하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정보의 발달로 인성이 기계화 되어가고, 타락해도 깨끗한 사람은 주인이 Tm시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2:20-21).

2) 경건성(영성)

빅터 프랭클은 그의 포로생활을 토대로 “포로의 생활습관과 생존의 관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여기서 “생존에 관하여 다방면의 학습을 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고 했다. 삶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실천한 사람은 생존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영성훈련을 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교회나 목사가 영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고 이미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영성훈련은 일반적인 Training이 아니라 Learning이다. 다시말해 강제성을 띤 타율적인 훈련이 아니라 자율성을 띤 다양화의 러닝이다. 미국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다양하게 합니다. 한 실례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동화를 해 주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미 그 동화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고 있다면, 본인이 원할시 밖에나가 모래장난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처럼 자율적으로 기도회나 말씀공부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체쳐들 수 없다.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영성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한다고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21세기에는 사단의 활동이 더욱 교묘히 그리

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과학기술과 조직사회의 반작용으로 이단과 사이버,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부분의 전문가로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교회를 섬겨야 한다.

김상복 목사가 편집한 “지도자에게서 배우라”는 책은 성공한 국내외의 정치인, 기업인, 기독교인 4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다양한 배경, 성격, 능력 그리고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의 특징들중 공통된 것은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리고 리로이 아임스의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에서는 지도자의 힘의 원천으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이것이 그들로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면 현 리더에게도 이 요소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열정과 헌신성

하나님의 일은 아르바이트나 부업이 아니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출근하는 직업 같은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이다. 고로 이 일에는 열정과 헌신이 따라야 하며,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달란트를 숨겨두고 일하지 않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임할 수는 없다. 경험과 이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정과 헌신감이 강하면 부족한 부분이 감추어 질 수 있다.

과거에는 공부든, 사업이든, 목회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을 힘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헌신과 희생이 성공의 요소임을 말한다.

현대의 수 많은 젊은이들이 무사안일, 태평, 노력없는 황금을 노리고 있듯이 젊은 리더들도 같지는 않은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거나, 눈치보면서 하거나, 내일로 미루는 식으로 하거나, 대충하거나, 위선적으로 하고 있다면 미래의 하나님 일도 볼보듯 뻔하다. 지금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그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워싱턴시에는 워싱턴 기념비와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전자는 미국의 형성을 위하여, 후자는 미국의 수호를 위하여 고투, 헌신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건조물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느브갓네살 왕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어내기 위해 헌신함으로 지금도 젊은이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맥스웰은 그의 책에서 열매맺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알의 밀알로 헌신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4) 전문성

미래사회가 전문기술 시대가 될 것임은 이미 말씀 드린바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교회의 리더 역시 전문가여야 합니다. 기도의 전문가, 찬송의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 교회행정의 전문가, 심리학의 전문가, 대화술의 전문가, 상담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전문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아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다른 방면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찾아온다면 비 전문가만 잠시 찾아와 머물 것이다.

교사
성가대
구역인도
컴퓨터와 음향
설교
행정
섬김, 봉사
글쓰는 것
드라마
기획
상담
중보기도
전도
언어의 능력
악기 다루는 것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일에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각 지체가 몸을 세워 나가듯 이같은 전문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민즈 박사는 “전문성이 없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법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결론

미래의 동향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맺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잘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